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
SUMMER 2019 Vol.61

ACRC NEWS LETTER 2019. Vol.61

SUMMER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국민권익

국민 — 결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더 나은 청렴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소리」

국민이 마음 편히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04

- 04 권익 포커스 ①
문재인 정부 2년, 위원회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
- 08 권익 포커스 ②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 개최

15

- 15 권익 르포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 16 보다
이동신문고의 역할
- 18 듣다
이동신문고 주요 해결사례
- 22 알리다
주요 성과 및 운영 계획

40

- 40 국민 생각함
이달의 주제, 중간소음해법
- 42 그곳을 걷다
포항이 건넨 풍경
- 48 권익 아카이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12

- 12 권익 빅데이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5대 공익신고 사건

25

- 25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 28 권익, 지금
민원조사기획과
- 32 청백리포터가 간다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명회를 가다
- 36 청렴 TOON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50

- 50 권익 트렌드&이슈
지금은 '뉴프로' 시대
- 52 권익의식주
생활의 법 - 올바른 식재료 보관법
- 54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PHOTO+WRITE
전정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첫발을 내디뎠다.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러한 행보와 동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했다.

부정과 반칙이 없는 나라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문재인 정부 2년, 위원회 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

- + 부패방지 분야
- +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분야
- + 권익개선정책 분야



부패방지 분야

법정부 반부패 개혁 기반 다진 2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 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법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공·경제·시민사회 등 6대 부문 30명의 대표로 구성됐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더불어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충돌 상황의 예방·관리 체계 도입 등 법령과 제도를 보완했다. 하반기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마련하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청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 | | | |
|----|----------|------------------------------------|
| 01 | 함께하는 청렴 | + 법국가적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
+ 민관 협력 거버넌스 |
| 02 | 깨끗한 공직사회 | + 채용비리 근절
+ 공공재정 누수 방지 |
| 03 | 투명한 경영환경 | + 기업회계 투명성
+ 공정경쟁·계약 기반 조성 |
| 04 | 실천하는 청렴 | + 신고자 보호 강화
+ 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 시스템 2년간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향후계획

- +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 활성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부패 취약부문 개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이행 등 법정부적 대응 지속 추진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사회협약 등 범사회적 반부패 파트너십 강화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분야

위법·소극행정 개선에 역점...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권익 구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기관
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접수된 443건의 집단민원 중 30.9%에
달하는 137건을 조정해 약 6만 여명의 숙원을 해결
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고자 농어촌, 전통시장, 임대주택 및 빈발 민원
발생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함으로써 총 4천8백여 건을
상당하고 2천2백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청구인과 행정기관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17년 5월 이후 집단민원 접수 및 조정 해결 현황

구 분	2017년(5월~)	2018년	~2019년 5월
접 수	153	229	61
조 정	52	65	20
접수 대비 조정비율	33.9%	28.4%	32.8%

향후계획

- + 집단민원 적극 처리 및 법적 근거 강화
 - 원만한 해결이 어렵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집단민원을 발굴하여
현장조정 등을 통해 해결
 - 행정기관의 신청에 의한 집단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민원현장 소통 확대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이동신문고 상담차량 운영
 -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
- + 국선대리인 및 조정 제도 활성화
 - 취약·소외계층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안내 강화 및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지원
 -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조사관 전문교육 등을 통해
조정 가능 사건 발굴 및 조정 실무 처리역량 강화
 - 공익관련 사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사건 등은
조정회의나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을 통한 조정 확대



권익개선정책 분야

국민 참여·소통 정책문화 정착

'민원 빅데이터' 기반 국민 불편 해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2년
동안 300여 건의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77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75만 건, 국민콜110 상담 건수는
325만 건에 달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토론 참여
수도 누적 25만 회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으로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개선과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의 추이와 국민 불편 사례를
정리한 내용을 담은 주·월간 <국민의 소리>를 400여
개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해 민원 빅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병무용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불편 사례 329건 중 196건(59.6%)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밖에도 학교 급식, 자전거 안전,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 사회 이슈 26건을 기획분석해 관계기관에 대응책
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자리, 생활 안전, 사회
안전망 등 3대 고충 분야에 대해 77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86건의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
생각함을 통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

국민생각함 참여·소통 현황

【국민생각함 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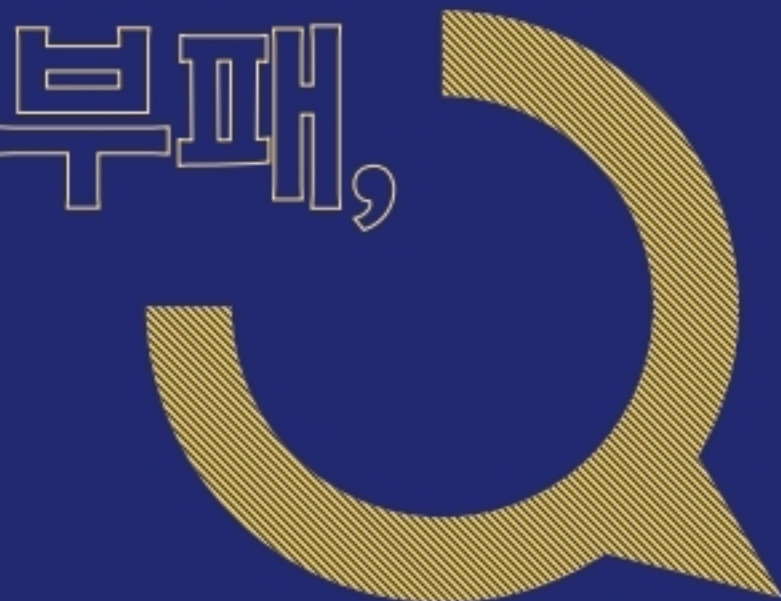


【참여현황】



향후계획

- + 미래 대응형 차세대 국민 소통·참여 플랫폼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공직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제고
 - 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기반 강화
-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복잡한 행정절차, 정보의 비공개 관행,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등을 신속하게 발굴·개선
 -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의 사각지대 적극 발굴
-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홍보 강화



국민에게 듣는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 마포구 히브루스 카페에서 '내가 경험한 생활 속 부패'를 주제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국민생각함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자 등 일반 국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상생활 속 부패와 부조리가 청산되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은정 위원장도 참석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토론 분임 활동을 함께하며 전 과정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70명을 선발해 3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단은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 개최

가까운 생활 속 부정과 반칙들은 깨끗하게 사라질 때다.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변화,
그 시작을 함께 하는 첫 토론회가 4월 27일에 열렸다.



+ 함께하는 청렴의 가치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이번 1차 토론회에서 발굴한 관행과 부패의 사례 및 근본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심화 토론과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제안 활동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 실시해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체감도를 확인하고 설문결과를 국민생각함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개선 도출 및 제안을 위한 2차 토론회가 8월 열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일상에서 겪은 생활 속 부패에 대한 경험과 근본적 원인에 대해 국민과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 열린 소통으로 공감하다 토론은 국민이 생각하는 생활 속 부패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분임 토론 후 전체 토론을 거쳐 참석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는 '숙의'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이 생각하는 생활 속 부패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참석자 43%가 형식적인 경쟁과 공개 절차 뒤에 정해진 결론과 답합, 21%가 집단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수직적 관계, 19%가 '만연한 부정수급'이라고 답했다. 또 '이러한 생활 속 부패를 경험한 장소'로는 학교와 직장 등 공적인 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참석자 36%가 불법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과 부정행위라도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28%가 기득권의 특권 의식과 도덕적 해이, 21%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미흡한 내부 공익제보시스템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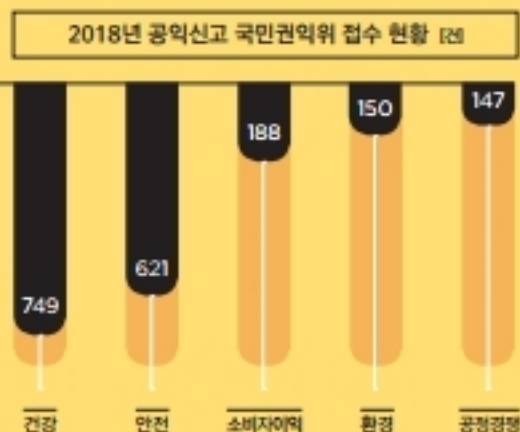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5대 공익신고를 선정했다. 이곳에 분야별 주요 공익신고 사건을 소개한다.

인포그래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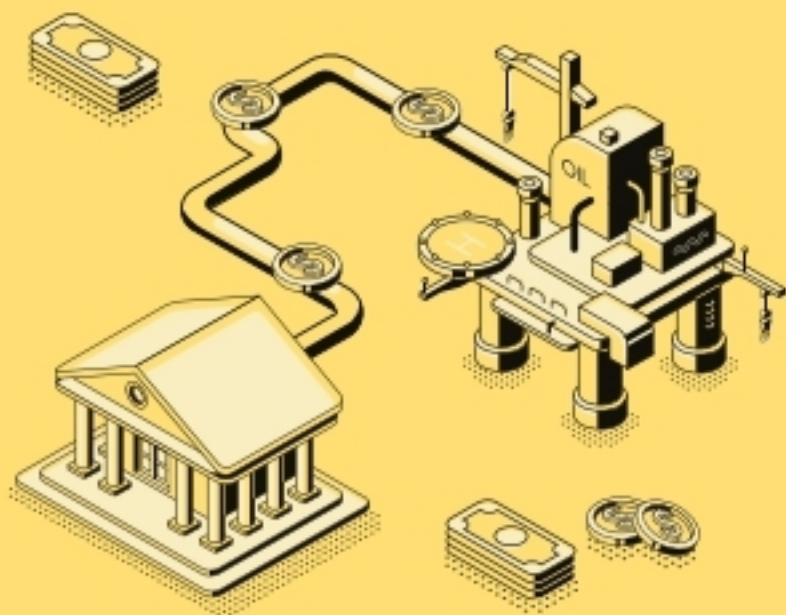
보는

5대 공익신고 사건



1st
건강 **40.4%**

수역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총 79명이 기소,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 7천만 원의 벌금형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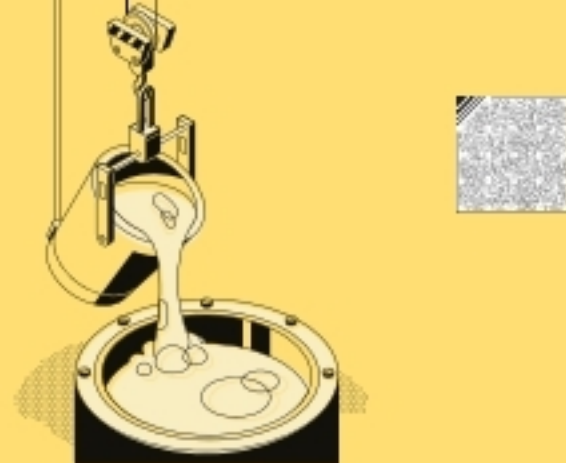
2nd
안전 **33.5%**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42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3rd
소비자 이익 **10.1%**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 검찰 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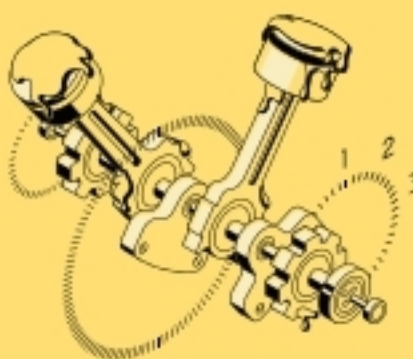


4th
환경 **8.1%**

폐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과징금 6천만 원 부여

5th
공정경쟁 **7.9%**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80여 개 사업자에게 법정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7천만 원 부과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는 민원인과 처리기관에서 공개에 동의한 민원답변 원문도 공개한다. 단, 고발·신고 등 제보성 민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이 곤란한 민원 등은 제외된다. 현재 자체 누리집에서 민원답변을 공개하고 있는 80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 향후에는 전체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처리 사례

Q.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명 후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생활 기록부를 정정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이 직접 졸업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 변경 신청
2. 민원인이 졸업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근 초,중,고 또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민원 신청
3.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및 정정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정정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 필요, 학생생활기록부 정정 후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639-6064

Q. 학교무상우유급식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차상위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수당·차상위계층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2.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선정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기타학생 선정 및 지원 가능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 031-249-0594

‘클릭’ 한 번에 다 보여요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875만여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 정보를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PC 접속방법



- ① 국민신문고 누리집
www.epeople.go.kr 민원 빅데이터 메뉴 클릭
- ②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
바로 접속(bigdata.epeople.go.kr)

모바일 접속방법



- ① 검색창에 'm.epeople.go.kr' 입력
- ②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배너 클릭
- ③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
바로 접속(bigdata.epeople.go.kr)

권익 르포 ② 생활 속 고충 해결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

○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STEP
01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동신문고의 역할

이동신문고는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을 찾아 주민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지역형 이동신문고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공공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각종 생활 속 고충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

맞춤형 이동신문고

군정병, 외국인 근로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상담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이동신문고 주요 해결사례

국민의 고충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상담 분야 또한 다양하다. 행정·문화·교육을 비롯해 사회복지, 노동, 생활법률, 도시·수자원,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교통·도로, 소비자피해 등이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대해서도 상담을 적극 실시한다.



Jeju-do

2019년 3월 제주지역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총 44
12

상담
(건)

현장해결
(27.2%)

(제주) 건축신고 수리 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 부당, 제주국제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허가 요청, (서귀포) 도시계획 우회도로 지하화 철회, 상속채무 이행청구 소송 대행 등 다양한 분야 민원 상담
+ 무료 한의진료 서비스 이용 : 15명

주요 민원 상담·처리 사례

제주시

[상담해결] 가설건축물 철거 유예 요청

제주시는 공유재산에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신청인에게 철거를 요구. 신청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설명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후 대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 사용할 것을 안내

서귀포시

[상담해결] 여성긴급전화 홍보물 문구 수정 요구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가 홍보용으로 제작·배포한 물티슈의 문구에 "여성폭력 피해 상담·보호"라 표기되어 있어 폭력의 주체가 모호하니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가 "여성폭력 피해 상담·보호" 문구를 "폭력피해 여성 상담·보호" 문구로 수정하기로 하여 민원해결



2019년 4월 경남지역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총 111
72

상담
(건)

현장해결
(65.0%)

(고성) 도로 및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정비 요구 민원이 많음
(산청) 주택건축, 분묘이장 및 지적측량 등 경계분쟁 민원 다수
(의령) 과속방지턱, 도로 선형개선, 가로등 및 화성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요구 민원이 많음
+ 취약계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질병 및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는 6가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사업 연계로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 등

주요 민원 상담·처리 사례

고성군

[합의해결] 마을안길 긴급 도로 정비 요구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소재 신기마을 안길의 도로 옆 옹벽과 도로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긴급한 도로정비를 요구하는 민원
에 대해, 사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신기마을 안길 도로 정비 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
고, 그 진행 경과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기로 합의해결

의령군

[상담해결] 마을방송 화성기 추가 설치 요구

신청인이 거주하는 유수마을의 마을방송 화성기 위치가 신청인의 주택과 약 500미터 이상 멀
어져 있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대피 안내 등에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민
원에 대해, 의령군은 신청인의 주택과 마을방송 화성기 위치 등 현장을 방문하여 2019년 6월
말까지 신청인의 주택 인근에 마을방송 화성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여 민원해결



2019년 4월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총 73
47

상담
(건)

현장해결
(64.4%)

(삼척) 레미콘공장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장 및 화력발전소 신설
종단 요구 등 환경침해 민원이 많음
(정선) 마을안길·농로 포장, 제방 축조, 등산로 정비, 농가주택,
축사 신축 등 농축업 및 주민생활 민원 다수
+ 취약계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질병 및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는 3가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사업 연계로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 등

주요 민원 상담·처리 사례

삼척시

[합의해결] 지적도상 도로의 불법 시설물 제거 요구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있는 지적도상 도로(강원 삼척시 사직로 299-4)를 침범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담장)의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삼척시가 지적도상 도로에 불법 시설물(담
장) 설치를 확인하고 2019년 6월까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합의해결

정선군

[고충민원접수] 부당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요구

신청인은 1951년 1월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중대본부 초소근무 후 부대 막사에서 취침
중 발생한 화재로 다리에 화상으로 인한 추상장애(瘻터)를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진료기록 등 사실
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충민원으로 접수

국민 만족도 상승을 위한 노력

2018년 주요 성과 및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운영실태를 평가 및 분석했다.
지난 해 주요 성과로는 이동신문고 운영 횟수 확대와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도입이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상승시켰다.

2018년도 이동신문고 운영실태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시횟수	84	5	5	6	9	4	11	7	5	7	9	7	9	
상담 실적	현장해결	1,032	58	79	125	104	30	85	63	116	96	152	88	36
	고충민원접수	240	13	15	23	28	10	19	24	33	12	35	15	13
	상담안내	891	43	92	124	90	33	115	70	28	62	68	78	88
	계	2,163	114	186	272	222	73	219	157	177	170	255	181	137

총계 **84** 운영 (회)
2,163 상담 (건)
1,032 현장해결 (47.7%)

고충민원 현장해결 확대로
국민체감 만족도 제고

+ 주민대표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건의
수렴 및 지역현안 해결 계기 마련(4회)
+ 민관협업을 통해 장애인·독거노인 등 긴급·
위기가정 발굴·지원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도입
(2018.11.19)

+ 버스에 국민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담설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국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2019년 운영 계획

2019년, 이동신문고는 보다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과 실속 있는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운영 횟수와 운영 지역 확대, 민·관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가
이뤄지기 때문. 이로써 이동신문고는 큰 만족감을 제공하며,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 지역형 이동신문고

2018년 **33** 회 → 2019년 **36** 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12회

+ 맞춤형 이동신문고

2018년 **51** 회 → 2019년 **61** 회

※ 상담버스 민생탐방 이동신문고(사골장터·다중이용시설): 24회

도서·벽지 중심 이동신문고 확대



+ 도서·벽지 주민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

도서·벽지 비중 확대(10곳 → 14곳)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한 격오지 읍·면 소재
다중이용시설 순회상담 실시(연중)

+ 상담수요를 반영한 운영지역 확대

지자체의 이동신문고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형 이동신문고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이동신문고 성과 우수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이동신문고 내실화



- + 사각지대 취약계층 권익구제 노력 지속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 추진 (2018년 51회 → 2019년 61회)
 -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

- + 이동신문고 상담서비스 활용 맞춤상담 강화
 - 이동신문고 상담서비스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12회)
 - 전국 5일장에서 서민생활 애로를 청취하는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운영(12회)

국민체감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 + 홍보 다각화로 국민체감 제고
 - 이동신문고·간담회 운영정보 및 성과 등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및 전파매체 연계 기획보도
- + 사후관리를 통한 고충해결 강화
 - 현장 접수민원은 소관 민원부서에 배정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이동신문고 전담인력 확충



- + 필요성
 -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필요
 - 운영 인력 보강으로 건의사항 후속조치 등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 + 추진방안
 - 다양한 민원상담 전문성과 현장해결 경험을 갖춘 민원부서 조사관을 지원근무 충원
 - 중장기적으로는 이동신문고 운영TF의 독립 부서 단위 조직으로 신설·확대 검토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 지원



- + 영세사업자 현장소통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현장 간담회 개최(12회)
 -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해소
- + 민·관 협업 원-스톱 현장해결 확대
 - 민·관의 복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심도 있는 문제 해결

ACRC NEWS

2019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공공재정 누수 막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제정 및 개정

자세히 알아보기

청원출발과 044-200-7691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혁신행정담당관 044-200-714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공재정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부패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협과 노하우 공유

부패방지 시책평가 말레이시아에 전수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말레이시아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에 대한 정책 연수를 4월 24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제교육담당관실 044-200-7150

실천을 위한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사회협약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렴사회협약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렴사회협약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협약 체결과 이행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참여기관, 단체에 청렴사회협약 실무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지역별 협약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민간협력담당관실 044-200-7164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청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는 4월 30일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의원들은 연수과정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반부패 법령지식을 익히고 청렴서약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역량강화와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청렴컨설팅을 활용해 서울시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043-901-6147

상생방안 마련

부산 미애원 변상금 문제 해결

전정고아를 돌보면서 시작한 '미애원'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이다. 그런데 미애원이 있는 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철도용지로 확인됐다며 2009년 6월 공단으로부터 변상금 부담을 요구받았다. 수익사업 없이 운영돼온 미애원은 변상금을 감지 못해 폐원 위기에 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이번 5월 2일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미애원에 부과된 변상금 감액을 검토하고 국유지 무상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고충민원특별조사팀 044-200-7328



찾아가는 적극행정 구현

첫 지역순회심판 대구에서 개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의 첫 지역순회심판이 4월 26일 대구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본위원회가 열리는 날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청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고충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고충을 듣고 권익을 구제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찾아가는 심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적극행정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심판출발과 044-200-7822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여권 훼손 안내표기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 현재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안내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손상임에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0



※ 위 소식들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WRITE 정라희
PHOTO 이원재

국가 발전에 따라 시민의식이 한층 높아진 지금, 국민들의 권익구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시정을 비롯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이다. 그중에서도 민원조사기획과는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총괄·기획·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에 해결의 빛을 비추다

+ 민원조사기획과

민원조사기획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국민의 고충과 불만을 제대로 살피고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한 여러 법령과 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정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곳. 그러다 보니 조사기획이 매우 광범위해 표준화된 조사 규정이 필요하다. 민원조사기획과는 고충처리국 내 민원과들이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향로를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민원조사기획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등대'라 할 수 있다. 현재 12명이 4개 파트를 맡아 고충처리국 업무의 총괄·기획과 예산·운영 지원, 고충민원 관련 법령 제도의 운영 및 처리현황 관리, 지방음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시정권고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숙경 조사관, 고규태 조사관, 임진홍 과장, 정승훈 조사관
(뒷줄 왼쪽부터) 이병화 조사관, 이현지 조사관, 강우성 조사관, 최준영 조사관, 남윤석 조사관, 박영아 조사관



+ 고충민원조사의 계획부터 점검까지

“민원조사기획과는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총괄, 기획,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이었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획 총괄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임진홍 과장이 민원조사기획과의 정체성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민원조사기획과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처리국 내 10개 민원과 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 지역에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내실화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고충처리국에서 처리하는 대다수 업무는 고충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거부되었던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절실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 문을 두드립니다. 그분들의 역할함과 고충을 해소하는 일이 고충처리국에서 할 일이죠. 누군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나까요?”

1차 행정에서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고충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남비(NIMBY : Not In My Back Yard)나 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공정하게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에 임해야 한다.

“SNS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죠. 한 지역 공동체에서 SNS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고 하면 집단화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도 공무원 못지않

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만큼 민원의 형태가 복잡해졌지요. 예전에는 한 개 기관만 해당하던 민원이 지금은 여러 기관에 걸쳐 제기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민원 처리 방법을 고안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민원의 집단화·전문화·복잡화 추세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집단민원조정법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 아픔도 기쁨도 국민과 함께 느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맡은 인력은 140여 명.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의 수는 한 해에 무려 8만 건 정도다. 그러다 보니 5만여 건 정도는 부득이하게 해당 기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바로 지방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다.

국민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는 민원처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관계없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민원처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민원조사기획과는 지역 상황과 문제점을 중앙보다 더욱 면

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옴부즈만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민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민원조사기획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적극행정’이다. 지난 5월에는 <적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해결로 처리한 총 1만5천여 건의 민원 중 제3자적 관점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관계기관이 받아들여 민원을 적극해결한 60건의 사례를 엄선했다. 분야별로 다양한 사례를 선정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했다. 앞으로도 민원조사기획과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고충민원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며 ‘국가 행정의 최후 A/S 기관’이자, 옴부즈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나서고자 한다.

민원조사기획과 업무 프로세스

- 1 고충민원조사에 필요한 각종 업무계획 수립, 대내외 업무협의, 국 예산 수립 및 집행, 통계 관리 등
- 2 고충민원조사와 관련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민원처리법, 고충민원처리지침 등의 운영,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관리,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등
- 3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 등
- 4 시정권고·의견표명 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Mini Interview



박숙경 조사관

11년 동안 경찰민원분야 조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부터 민원조사기획과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를 행정기관이 수용(이행)하지 않으면 권익구제의 실효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불수용 권고를 수용하도록 설명하고 수용된 민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사관이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규태 조사관

지난해 2월부터 민원조사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조사관들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현재 성과평가 업무와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총괄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더욱 다양한 업무 분야를 경험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인의 고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백리포터가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명회를 가다 지금 간다!

지난 3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부패·공익신고제도와 신고자·제도운영과 현황 설명을 듣고, 국민이 신고자 입장에서 궁금할 사항을 인터뷰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단체카톡방 사건들로 인해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공익부패신고,
어떻게 할까?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2019 청백리포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양동훈 과장이 부패·공익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요,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침해행위이고,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본인이 설명으로 접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익신고가 기명신고의 원칙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중 변호사

대리신고가 기명신고 원칙에 대한 절충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 노출이나 신상 노출을 걱정하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어 기명신고 원칙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를 위한
확실한 보호·보상

이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패신고 대상은 부패행위이고, 여기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신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보호·보상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슷합니다. 양동훈 과장의 명쾌한 설명을 들으니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하여 속속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보호제도에는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결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에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부 신고자도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금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내부 신고자로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청렴 Q&A

Q.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불이익조치가 있다면 그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공익신고를 하는 내용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이면,
 그 신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신고자는 책임감면이 됩니다.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
 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책임감면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하나로,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 신고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해놓았는데
 외국인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자보호제도 제정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고, 부패한 내용이 많아 '누구든지'라고 제정하였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사람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부패행위를 직접 보았거나 그러한 의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엔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해 신고자보상과 박혁구 과장과
신고자보호과 김지혜 사무관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되길 바라며

질문 시간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궁금했던 공익신고제도와 관련한 내
 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동훈
 과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사를 마무리하
 려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고자가 공익을 증진하는 아주 중요한 존
 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 여러분의
 글과 사진에 소중한 생각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청백리포터로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올바른 시각으로 다
 양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식과 정책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보다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WRITE
일반부문 최우수상, 권재영

일반부문 최우수상 먼지떨이 인생의 부활

작은 유혹에 흔들렸던 사람이 있다.
대수롭지 않아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정직'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 기본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곳곳이 지켜낸 그는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유혹에 굴하지 않는 정직함이다.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고향 숲에 든다. 반백년지기 노송이 안부를 물어온다.
“따님은 건강하냐고” 순간 뜬금없는 우환에
내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던 악몽이 되살아나 가슴팍에 모래바람을 일으킨다.



신혼시절이다. 돌잡이가 얇은 종병을 감기로 오진한 사골의 늙은 의사는 닳새를 허비한 후에야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처방을 내렸다. 토끼심장으로 찾은 대학병원의 진단 결과는 마흔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생명이…….”

호되게 나무라는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듯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하얘진다. 아기의 병명은 치사율 80%라는 ‘결핵성 뇌막염’이다. 이미 끝돈타임을 놓쳤으니 목숨부지도 감지되지한 일이었다. 전생애 지은 쫓값일까? 암울한 처사에 눈물만 흘렸다. 결핵이 갖는 전염성 때문에 움츠린 독방에 격리되어 2년이라는 긴 치료가 시작되었다. 단독병실 사용에 의료보험이 6개월만 허용되던 때라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선천이 남긴 자갈은 몇 마지기를 쏟아부어도 모자랐다. 딱노동이라도 해야 할 만큼 다급해진 나는 대구 변두리에 있는 판자촌에 사글셋방을 얻어 거처를 옮기고는 직장을 구하러 나섰다.

그때 가깝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공기업인 전화국에 잡급직(계약직)을 제의받게 되었고, 찬밥 더운밥 가릴 입장이 아년지라 기꺼이 승낙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지인은 내게 “성실하게만 일하면 정식 직원도 될 수 있다.”며 은근슬쩍 귀뜸을 해주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조직에 미운오리새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리라. 보직은 ‘면지관리요원’이다. 인력은 없다. 그냥 한낱 청소도구로 보면 된다. 속없는 직원들은 면전에 대놓고 “면지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는 일은 기계실에 쌓인 면지를 털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건비 명목일 뿐, 실제 업무는 공중전화에서 걸어온 동전을 세는 일이다. 그 작업장을 ‘주화사산실’이라고 불렀는데 3명이 근무했다. 외근직원들이 공중전화를 순회하며 집금통(돈통)을 거두어오면 봉인여부를 확인하고 동전을 꺼내어 공중전화번호와 역면별로 사산하고, 다시 빈 통을 봉인하여 교부하면 된다.

바닥을 헤매는 우리 집의 경제력과는 달리 당시 공중전화는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절이라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단했다. 고객이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투입하고 통화를 한 후 남은 돈이 백원미만이면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돈을 ‘낙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돈만 해도 당시 전국에 한 해 동안 14억 원이나 발생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하면 이 불로소득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공짜라면 양껏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는가, 이 돈이 유혹의 덫이었다.



주인 없는 돈

좋은 게
좋다
동료와의 균형



주인 없는 돈
좋은 게
좋다
동료와의 균형

출근한지 보름쯤 지났을까, 열방에 일하는 선배 직원이 퇴근길에 술 한잔하자고 제의를 해왔다. 그간 업무도 살들하게 배워주고 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려는 참인데 내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승낙을 했다. 여직원은 빠지고 들어서 선배 직원이 종종 간다는 소주방을 찾았다. 술이 몇 순배 돌아 얼큰해진 선배가 잠시 틈을 들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변주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해요. 공중전화는 낙전과 불당주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금된 전액을 불입할 필요가 없어요, 오백 원짜리 동전 한 판(50개) 정도는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전을 모두 불입한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닌지라…….”

주인 없는 그 돈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게 대수냐며 ‘좋은 게 좋다’고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줄 것을 은근히 내미쳤다. 설사 그 금액이 고 봉법에서 티스푼으로 한 순갈 들어낸 밥풀처럼 소액에 불과할지라도 행방은 분명 범퍼다. 그 행방한 돈으로 술을 샀다면 그 술을 같이 마신 나 역시 공범이 아닌가. 갑자기 술맛이 툭 떨어지고 취기에 몽

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이 그렇게 중요세요? 밑바닥 일을 한다고 사람까지 먼지떨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상대가 민망하고 반감도 가질 수 있기에 참았다. 다음날이다. 동전을 세는 나의 뇌리가 복잡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평생 납작보리쌀밥을 먹어야 한다.”며 울먹이던 아내의 불멘소리가 현금이 주는 유희와 버무려져 자꾸 내 귀를 잡아당겼다. ‘주인 없는 돈’, ‘동료와의 균형’, ‘좋은 게 좋다’는 어휘들이 가슴을 흔들었다. 분명 나는 생계와 양심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평생 같아도 부족할 병원비,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쥐꼬리 봉급, 일수라도 찍어야 할 판국에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양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될 것을……. 아니다, 이내 생각을 바꾼다. 일순 차가워진 머리가 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온 악마의 손을 식득 잘랐다.

“부정과와 결탁은 예초 작은 돈으로 시작되는 거야. 이깟 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남들 다하는데 좀하면 어때? 이렇게 부정을 끼워 넣다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패의 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거지.”

나는 독백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순간이지만 죄악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해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 마음에도 그런 용지 못한 어둠과 추잡한 구석이 있다는 게 싫었고, 동네 마지막 훈장으로 청렴과 예절을 살의 숙제처럼 곳곳이 지키며 살다 가신 아버지의 도끼눈이 어론거렸다. 성인군자는 못 되어도 도독으로는 살지 말자는 내 살의 신념이 고작 동전 몇 푼에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그 후로 선배 직원이 종종 퇴근길에 술자리를 권했지만 나는 말아이의 병간호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왕따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내가 행방을 하고 있다는 추문이 나돌았다. 억장이 무너졌다. 주객을 전도시킨 쑥덕공론의 진원지야 불을 보듯 뻔했지만 무작정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닌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만한 벌이터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냥 오명을 뒤집어쓰고 끝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나날 끝에 재계약 날이 왔다. 나는 사물함을 비울 보자기를 아내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출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근무할 일은 만무했다. 소문의 진위를 알아낼 방법도 없는 마당에 닌들 현금을 주무르는 자리에 손버릇 나쁜 사람을 그냥 두겠는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평소에 관리자에게 소주라도 한 잔 대접할 걸 그랬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의 대쪽 같은 성격을

맞해보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었다. 국장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불려가 앉았다. 차 한 잔을 코로 마시고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머뭇속에 떠올렸다. 그때 국장님이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다.

“인력 감축 때문에 세분 모두 재계약을 해드리지 못해 미안하네. 올해는 정규직 한 명과 두 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함새. 변주사가 두 몫으로 열심히 일해 주게나.”

뜻밖의 결과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추문으로 발탁 일 순위인 내가 그들을 제치고 재계약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일 년 통제로 완성되는 ‘낙전발생률’이라는 투명한 재계약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닢의 동전까지 누가 보든 말든 묵묵히 불입한 내 양심의 승리였다. 그로부터 5년 뒤 나는 청렴과 결백을 무기로 내부 공채를 거쳐 정규직원이 됐다. 인생의 고비마다 섯길을 찾는 요즘 ‘진실과 정직’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며 편법과 불법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처세이고, 기술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고 ‘정직’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진리다. 세금으로 해 입은 역대의 웃은 이미 칙칙한 수의로 변했고 뇌물로 받은 금붙이는 자신을 묶는 온팔피가 되어 번득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한 푼의 돈이 아쉬웠던 그때 돈보다 정직을 택한 덕에 내 먼지떨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햇살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5%의 기적으로 중병을 극복한 딸내미 역시 투명한 삶으로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합창하며 마지막에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주는 보상이라고 나는 감히 믿고 있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린다.

이번 주제는 '충간소음해법'. 소음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국민을 위한 생각함

이달의 주제, <충간소음해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리

충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은 물론 심한 경우 살인, 방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 ☎ 1600-8172

국민의 소리

뛰거나 공공거리는 건 일반생활소음이 아닙니다. 이웃마다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충간소음은 이웃에겐 폭력이고 고통입니다.

외국처럼 충간소음으로 계속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로 퇴출하거나, 공동주택에 살 수 없게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진*

서성*

충간소음의 법적기준을 마련해서 기존 이상의 소음 발생 시 범칙금처럼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제재가 주어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유인*

건설사의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은 물론,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세대에서 함께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송현*

충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건설기준을 마련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영*

건설사가 충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성능 기준'을 강화 및 개선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충간소음도 준수해야 할 법정의무를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

정부의 규제, 건설사의 방음, 충간소음을 인식한 건설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이웃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아닌 것 같은 행동은 삼가고, 불편 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한다면 충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곳을 건다

WRITE 주문수
PHOTO 최준근

2019 SUMMER

ACRC News 01241

갈증에

포함이 건네는 풍경

~
대하여

갈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시원함에 대한 욕망은 피서지를 찾게 하고, 새로움에 대한 욕망은 색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한다. 갈증이 해소될 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며 변화를 받아들인다. 지금 당신의 갈증은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갈증이어도 좋다. 여름의 시작점에서 만난 포함은 저마다 품은 욕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있다.

에피소드, 하나

기대감이라는 갈증을 품고



보경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054-262-1117

산에 오르는 이유를 새롭게 써보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으로 온몸을 적셔도 등산을 하는 이유는 그곳에 폭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울여름,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던 갈증까지 시원하게 씻어줄 폭포 한 잔이 여기 있다.

포항 내연산은 열두 개의 큰 폭포가 등산로 굽이마다 쏟아지는 곳으로 이름 높다. 제1폭포인 상생폭포를 시작으로 제12폭포인 시명폭포까지 왕복 15km 정도 된다. 깊은 계곡 속에 숨은 폭포들은 저마다 다른 매력을 풍기며, 폭포가 흐르는 계곡 좌우로는 노송과 어우러진 기암괴석이 뿔뚱히 서 있어 내연산만의 비경을 연출한다.

이들 12폭포 중에서도 상생, 관음, 연산폭포를 각기 하폭(下瀑), 중폭(中瀑), 상폭(上瀑)이라 부르며 가장 큰 세 개의 폭포로 꼽는다. 산행 코스야 다양하지만 그중 보경사(寶鏡寺)에서 출발하는 길이 가장 유명하다. 등산로는 왼쪽에 계곡을 끼고 있다. 맑은 계곡물이 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 연산폭포까지는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아 오르막길 몇 번 오르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코스다. 그래도 여름 무더운 날씨에 산행을 시작하면 땀은 비 오듯 쏟아진다. 테크닉이 잘 잡힌 곳과 함께, 경사가 급한 계단이나 바윗길이 섞여 있어 호흡도 점차 거칠어진다. 묵묵히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잔잔한 계곡물 너머로 우렁찬 폭포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내연산 12폭포

- | | |
|--------|---------|
| ① 상생폭포 | ⑦ 연산폭포 |
| ② 보현폭포 | ⑧ 은폭포 |
| ③ 심보폭포 | ⑨ 복호1폭포 |
| ④ 잠룡폭포 | ⑩ 복호2폭포 |
| ⑤ 무룡폭포 | ⑪ 신평폭포 |
| ⑥ 관음폭포 | ⑫ 시명폭포 |

가져온 물도 미지근하게 식어 갈증이 고조될 때쯤이면 12폭포 중 첫 번째인 상생폭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보는 것만으로 그간의 노고를 풀어주는 시원한 경치에 무더운 여름까지 잊게 된다. 상생폭포는 폭포가 두 줄기로 나뉘어 쏟아져 내려 과거 '쌍둥이 폭포'라는 의미로 쌍폭(雙瀑)이라고도 불렸다.

상생폭포를 뒤로하고 보현폭포, 심보폭포 등을 지나 계속해서 내연산을 오르다 보면 구름다리 아래로 깊숙이 들어간 계곡 속에 떨어지는 웅장한 폭포가 나타난다. 이곳이 제6폭포인 관음(觀音)폭포다. 주변의 경치가 너무나 빼어난 탓에 관세음보살이 금방이라도 나타나 중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느낌에 지어진 이름이다. 관음폭포 위로 보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내연산 최대의 폭포, 연산폭포가 나온다. 높이 30m, 길이 40m, 길이 2m 규모로 산행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웅장한 절벽 아래로 연산폭포의 굵고 거센 물줄기는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여름철 방문객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에피소드, 둘

폭포수가 선사하는 해갈



호미곶(虎尾串)은 한반도를 호랑이로 보았을 때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호랑이 꼬리라는 의미를 지녔다. 대한민국 내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매년 연말연시 일출을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 항상 붐빈다. 그렇기에 여름 호미곶은 각별하다. 계절에 관계없이 늘 떠오르는 태양은 사람이 많지 않은 여름철, 온전히 내 것인 양 찾아온다. 적막한 새벽 공기를 들고 맞이하는 일출 감상은 호미곶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호미곶에는 그 유명한 상생의 손이 하늘을 떠받치고 솟아있다.

새천년을 축하하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상생의 손은, 호미곶 해맞이 축전을 기리는 상징물이다. 육지엔 왼손, 바다엔 오른손이 있으며 상생을 의미하는 두 손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바다에 솟은 상생의 손을 감상하며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이뤄질 것만 같다.

에피소드, 셋

동쪽 끝에서 보는 특별한 일출

국립동대박물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

☎ 054-284-4857



에피소드, 넷

구룡포에는 작은 일본이 있다

오늘도 여전히 그곳에 있길, 그대로 있길

호미곶 아래로 해안도로를 약 12km쯤 달려가면 항구마을 구룡포가 나온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뜻의 이 마을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하던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다. 그러던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제가 구룡포를 대량 어획을 위한 기지로 삼으며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오게 됐다. 구룡포 항을 마주 본 대로변 뒤편으로 이어진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그 시절 흔적이 그대로 녹아있는 장소다.

현재는 일본식 목조건물 50여 채가 남아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일본인들의 음식점, 미용실 등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지금은 주로 한국인들의 개인 주택으로 변했다. 그러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며 식당, 카페 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곳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구룡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영화들이 있다.
마치 실제로도 일어날만한 사건들로
구성된 이런 영화들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무수히 던진다. 영화가 남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이 영화들에 주목해보자.

스노든

감독 올리버 스톤
출연 조셉 고든 레빗, 제임스 우들리 등
장르 드라마, 스릴러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스노든'은 미 중앙정보국(CIA)을 거쳐 미 국가 안보국(NSA)에 근무하던 중, NSA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그는 이 내용을 고발할 것인지 혼자 삼키고 말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러면 그에게 고발을 결심할 만한 사건이 생기고, 결국 그는 내부고발자로서 NSA를 상대하게 된다. 흔히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조직 내 배신자로 간주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공익적으로 무척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영화 <스노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더욱 옹골차지기를 바란다.



발암교라는 다리가 폭파되고, 이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 이방우는 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테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사건 속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직감한 이방우는 진실을 찾아 나선다. 국가 전체가 숨기고 있는 부정부패를 주인공이 파헤칠 수 있을까? 영화 <모비딕>은 동명의 소설에서 모티브를 딴 영화다. 소설 <모비딕>에서는 "그것이 고래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맞서 싸운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처럼 영화는 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사회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비딕

감독 박민재
출연 황정민, 진구, 강민혁 등
장르 드라마, 스릴러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감독 추창민
출연 이병헌, 류승룡, 인호주 등
장르 드라마



"모두가 꿈꿔온 또
한명의 왕이 있었다"

봉당정치로 혼란에 휩싸였던 광해군 8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차 난폭해져가던 왕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의 대역을 찾으라 명한다. 이에 '하선'을 데려와 왕의 대역을 시키게 되는데... 왕의 흉내를 내다가 진짜 왕이 되어버린 하선. 난폭했던 광해군과 달리,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하선을 왕으로 섬기며 하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신하들이 늘어간다. 하지만 하선은 "나 살지고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실소!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희생을 거절한다. 우리는 따뜻하고 강직한 하선에게서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살펴볼 수 있다.



방산비리, 군납비리를 조준한 영화 <1급기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공군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등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다.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박 중령은 국방부 항공부품 구매과로 발령받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다. 새 근무지에서 결재 서류를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이 의문들이 연이은 전투기 추락 사고와 연관된 것임을 직감한다. 박 중령은 내부고발에 나서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영화는 내부고발자가 외압에 흔들려면서도 결국 옳은 마음을 지켜내는 과정을 그려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유도한다.

1급기밀

감독 홍기선
출연 강성연, 김국민, 최우성 등
장르 드라마



"너희가 시작한 전쟁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PHOTO+WRITE
한장님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그 어딘가, '뉴트로(New-tro)'가 났다.

패션업계에서 시작하던 작은 바람은 이제 외식,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돌풍으로 번졌다.

지금은 2030세대에겐 신선함을, 4050세대에겐 추억을 선사하는
새로운 복고가 꽃피는 중이다.

지금은 '뉴트로' 시대



New + Retro

뉴트로(New-tro)란?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와 복고의 레트로(Retro)가 합성된 말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새로운 외향과 기능을 갖춘 새로운 복고를 의미한다.

촌스러울수록 힙하다 30·40·50대가 유년 시절에 신던 추억의 운동화가 현재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이 되고,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촌스러운 티셔츠가 10~20대에겐 사랑받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단연 판촉용 컵이다. 할머니네 찬장 속 서울우유, 델몬트, 썬키스트, 호두이 로고가 찍힌 옛날 음료 컵들이 중고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꼭 하나쯤 만나게 되는 허름한 철물점과 오래된 제지 공장은 현대적 감성의 카페와 주점으로 바뀐 지 오래다. 오래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지만, 밤낮없이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그 안에는 내부 인테리어로 활용한 오래된 자개장이 한쪽 벽면을 차지한다. 색다른 분위기의 공간은 SNS 인증의 성지로 등장하고, 알록달록 촌스러운 테이블보나 빈티지 아이템은 '핫플레이스'의 필수 요소다. 물론 그곳에서 파는 음식이나 디저트는 세련된 것이라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간이 주는 익숙함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즐긴다.

그게 다가 아니다 최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왜 낡고 촌스러움에 열광할까? 너무나 빠른 시대 흐름 속에 피로와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뉴트로의 핵심인 현재 시점의 '재해석'과 맞물려 문화가 유행하는 중이다. 단순히 옛것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다고 다 뉴트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멋진 것도 흔해지면 식상해지고 금방 잊혀진다. 하드웨어는 과거, 소프트웨어는 현재이다. 현재 소비 트렌드는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추억이 가진 힘은 강하다.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앞으로 뉴트로 감성을 지닌 물건들은 우리의 향수와 호기심을 자극하며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 문화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기대가 된다. 그렇게 젊은 층들은 TV나 책 속에서만 보았던 것들을 실제로 마주하며 뉴트로의 세계에 매혹된다.

주방 속, 각자의 피서지

생활의 힘
올바른 식재료
보관법



우리 집 주방에 피서객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바로 식재료들이 신선함을 위해 각자의 피서지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피서지는 우리처럼 시원한 물과 바람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 몸에 활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식재료 하나하나가 향하는
그들만의 피서지를 따라가 보자.

값비싼 육류 x 올리브오일

육류는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해 먹을 수가 없게 된다. 기껏 사놓은 비싼 고기가 상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육류는 보통 냉동 보관을 많이 한다. 냉동실에 보관한 고기도 시간이 지나면 변색된다. 이것은 수분 증발과 산패 때문이다. 올리브유를 활용하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고기에 올리브오일을 밀라 겹을 싼 후, 냉동실에 넣어 주면 된다. 해동 후, 다시 얼리는 것은 식재료 관리 상 위험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나누어 담는 것이 좋다.



까다로운 생선 x 소금

생선의 보관법은 매우 까다롭다. 육류보다 상하기 쉬워 바로 냉장 보관을 해주는 것이 좋고, 이때 내장 제거는 필수다. 내장 속에 있는 소화 요소가 부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같이 넣어 두면 더 빨리 상하게 된다. 내장을 제거한 후에는 소금을 뿌려 주거나 소금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냉동 보관을 한다. 보관할 때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필수다.

먹다 남은 빵 x 냉동실

오래 두면 마르고 곰팡이가 피는 빵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수분 유지를 위해 각설탕을 넣어두면 좋다. 냉동실에 보관해 딱딱해진 빵은 실온 그대로 두고 녹이는 것을 권한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또다시 폭신한 빵을 먹을 수 있다.



내유외강 과일 x 상온 보관

육류나 생선에 비해 부패 속도가 느린 과일.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과일은 우리의 눈을 피해 안쪽부터 썩는다. 이러한 과일은 냉해를 잘 입는 식재료이기에 상온 보관한다. 또한 다른 종류끼리 맞닿으면 금방 상하므로 같은 종류의 과일끼리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물기 많은 채소 x 신문지

채소는 물기가 많아 상하기 쉽다. 따라서 과일처럼 씻어서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작은 구멍을 뚫은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을 권하며, 데친 채소는 젖은 신문지와 겹에 싼 후 보관한다. 채소는 뿌리를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세워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가 유지된다.



음식에 따른
올바른 밀폐 용기



뜨거운 음식
내열강화 유리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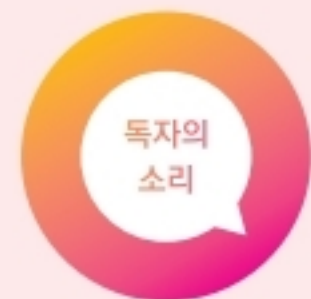
기름기가 많은 음식
유리 용기



발효식품
도자기 용기

출처 - 네이버블로그

※ 스테인리스 용기에는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플라스틱 용기에는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 <불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정해원(경기도 고양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국민권익> '권익 르포'를 통해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입니다.

박지영(서울시 양천구)

첫 페이지에 '제자리'라는 짧은 글귀와 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제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함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소원(제주도 서귀포시)

국민참여-공모전의 사연수기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좋았습니다. 농사에 관한 할아버지의 소신과 그런 뜻을 제대로 이어 받은 아버지의 정직한 "위대한 유산"이 현재 우리들에게 소중한 깨우침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원(서울시 용산구)

'권익지금-행정심판총괄과' 코너를 읽고 행정심판총괄과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로 효과적인 행정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김은미(대구시 수성구)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데요, '국민권익위' 공식 채널 구독을 통해 영상으로 다양한 국민권익위 활동을 접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책자 이외에도 카카오톡, 모바일, 앱, QR 코드 등 보다 쉽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권익> 소식지를 접하면 좋겠어요.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OOOOO'를 통해 생활 속 고충과 불만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힌트 : 권익르포 16p)

지난호 정답

국가청렴도

정답자

이준희(서울시 서대문구)

차수정(광주시 광산구)

최영수(대구시 수성구)

김지윤(경상남도 양산시)

최해금(강원도 춘천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9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당신의 일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

정직, 공정, 양심 등과 관련된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사연(수기) 공모

청렴, 정직, 양심과 관련된
일상 생활 속 사연을
보내주세요!

#글로 쓰는
청렴 이야기

접수기간

2019. 5. 31(금) ~ 9. 23(월) 17시까지



스토리텔링 공모

청렴을 주제로 한
강연, 토크쇼, 인터뷰 등의
스토리텔링 영상을 보내주세요!

#말로 전달하는
청렴 이야기

접수기간

2019. 5. 31(금) ~ 9. 23(월) 17시까지

다큐멘터리 공모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주요 사건 또는 인물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영상으로 만드는
청렴 이야기

접수기간

2019. 6. 28(금) ~ 10. 21(월) 17시까지



랩(RAP) 공모

청렴-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랩(RAP)영상을 보내주세요!

#랩으로 표현하는
청렴 이야기

접수기간

2019. 6. 28(금) ~ 10. 21(월) 17시까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응모

공모 분야 별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